국제결혼부부의 가치관 및 의사소통유형과 갈등과의 관계*

The Values, Communication Type and Conflict of International Marriage Couple

홍달아기** · 채옥희
원광대학교 생활과학대학 가정아동복지학과

DalAhGi Hong · OckHi Chae
Dept. of Family·Child Welfare, Wonkwang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examine the values, communicaton type and conflict type also marital satisfaction level of international marriage couples in Chunlabuk-do. Its results are as follows ; the 140 respondents were surveyed for this study. The follows are to be concluded based on the study. First, they living with their extended family members(85.7%). So most women have psychological burden relatives relationship as well as marital relationship. Second, meaning of marriage and reason of marriage was differently perceived by both couples. They need a family life education program and counseling of marital relationship. Third, conflict and marital satisfaction level were significantly affected. Fourth, type of communication was the only variables that siginificantly affected the type of congruence by both couples. Age and nationality acquisition were variables that siginificantly affected by women on international marriage. In conclusion, systemic korean education program is an important support system for women on international marriage and a crucial program for their settlement in Korea.

Key Words : extended family members, systemic korean education program

Ⅰ. 서론

현대사회의 다양한 가족의 등장과 함께 외국인 여성과 한국인 남성의 국제결혼가족도 급증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사회에 국제결혼이 급증하게 된 원인은 한국사회의 개방화와 국제화로 인한 노동시장개방에 따라 제조업이나 전문직에 종사하는 남녀 간의 만남이 국제결혼으로 이어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요인은 농촌지역 남성이나 도시 저소득층남성의 경우 지역사회 혹은 국내에서 배우자를 찾지 못하고 결혼적령기를 넘기면서 그 대안으로 외국인 여성과의 결혼을 선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한국사회의 지역 간 성비의 불균형, 결혼수급의 불균형은 국제결혼에서 여성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들의 한국생활에의 적응은 의사소통과 문화적 차이로 인한 어려움이 주된 어려움으로 되어 있으며 그들과 함께 사는 가족들의 호소도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가장 큰 적응의 걸림돌로 지적 (양순미, 2004.2006; 정영덕, 2004; 홍달아기.채옥희, 2006; 채옥희.홍달아기, 2007)하고 있다. 다양한 생활상 문제들의 원인도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파생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들이 겪는 어려움은 남편만이 유일한 의지가 되는 체계 하에서 경제적, 사회적, 정서적,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 한국남성과 결혼함으로써 이주여성들은 그들의 꿈을 실현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이들은 의사소통의 어려움, 문화적인 차이로 인한 고충, 차별대우, 시부모의 학대, 남편의 술주정, 도박, 의처증, 폭력 등으로 고통 받는 사람과 이혼하는 사람도 증가하고 있다(채옥희. 홍달아기, 2007). 특히 국제결혼여성들이 호소하는 가장 많은 어려움은 의사소통 문제이며, 남편의 애정, 경제적 어려움, 자녀양육 및 교육문제로 볼 수 있다. 의사소통은 자신의 감정과 마음을 서로 소통하면서 서로에 대한 이해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다.

남편들이 성역할 태도나 사회적 관계의 정도가 여성의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상태와 관련이 있음을 밝힌 한인이

* 이 논문은 2006년도 원광대학교 교내연구지원비에 의해 연구되었음.
** Corresponding author: Dalahgi Hong
Tel: 063) 850-7135, Fax: 063) 850-7301
E-mail: dalhong@wonkwang.ac.kr

민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현아, 2001)에서 남편들의 융통성있는 역할이 자신의 성역할 태도나 사회경제적 상태와는 상관없이 심리적 복지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민여성에게는 다양한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서리나, 2006).

그동안 국제결혼을 다룬 연구는 한국문화와 외국문화의 차이에서 오는 문화적 충돌과 여성문제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가정폭력과 학대, 갈등 등을 한정된 지역의 표본조사에 의해 연구되어왔다. 그러나 국제결혼 건수의 급증은 국제결혼과 관련하여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를 조사하여 적절한 사회적. 국가적 대처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시급하게 되었다. 또한 국제결혼을 하여 한국에 시집와서 사는 여성들은 '이민자'의 삶을 살고 있으므로 그들이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한국사회에 잘 적응하도록 돕는 지원프로그램과 정책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국제결혼 부부의 의사소통유형과 갈등의 유형을 파악하고, 이들의 삶에 가장 걸림돌이 되고 있는 의사소통과 갈등, 가치관과 결혼만족도 등의 관계를 분석하여 바람직한 가족생활 적응에 필요한 전략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이들이 실생활에서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파악하고 건강한 가정생활적응을 돕기 위한 전략과 정책마련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국제결혼의 현황과 실태

우리나라에서 국제결혼의 시초는 가야국의 수로왕부터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근대에 이르러는 이승만대통령 서재필박사 등을 들 수 있다. 대부분 한국전쟁 후 미군과 한국여성들과의 결혼에서 찾을 수 있는데 당시 미군과 결혼한 여성들 다수는 가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미군과 결혼을 하였다(유철인, 1996). 이러한 국제결혼이 이루어진 역사적. 사회적 배경 때문에 국제결혼을 바라보는 한국인들의 시각은 매우 부정적이었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 이후 외국과의 교류가 확대되고 유학이나 해외주둔 등의 이유로 중. 상류 층 여성들의 국제결혼이 이루어지면서 국제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되었다.

1990년대에 국제결혼이 급격하게 증가되는데 이는 한국사회에서 성비의 불균형과 농촌으로 시집가지 않으려는 여성들이 증가함에 따라 농촌총각들이 한국에서 결혼상대자를 찾지 못하게 됨으로 경제적으로 빈곤한 국가의 여성들과 결혼이 주를 이루었다. 또한 이혼율의 증가에 따른 재혼율의 증가도 국내 결혼입지가 좁아지면서 외국인 여성과의 결혼이 급증하고 있다(양순미, 2006)고 보고하고 있다. 1992년 한. 중 수교 이후 조선족 처녀들과 농촌총각들의 결혼이 급증하여 2005년 사이에 한국으로 결혼을 통하여 입국한 여성들이 159,992명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여성결혼이민자의 출신국가는 주로 개발도상국으로 초기에는 중국(조선족포함)여성들이 가장 많았으나 점차로 베트남여성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2004년도에는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남성들이 국제결혼하는 대상국가는 중국의 비율이 높았으나 2005년도에는 베트남의 비율이 농림어업 종사자들의 국제결혼건수의 53%로서 가장 높았다(양순미, 2006). 조선족여성은 언어와 문화, 혈연적배경이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한국생활에 적응하는데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는 기대가 있었으나 중국과 한국은 사회문화적인 체제가 다르므로 그들이 한국생활에 적응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르기 마련이다. 하물며 언어가 통하지 않고 사회문화적 배경이 전혀 다른 나라에서 결혼해온 여성들이 한국 사회적응에서 어려움은 배가되고 있을 것이다. 2005년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이 결혼한 부부가 이혼한 건수는 2005년 전체 혼인건수의 7.8%에 이르러(통계청, 2006) 204년도에 비하면 51.7%나 증가한 것으로 이러한 증가추세가 계속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혼을 야기하는 근본적이고 공통적인 문제점으로는 의사소통의 불편함이나 문화배경과 가치관의 이질성이 지적되고 있다(양순미, 2006). 가족과 친척 간의 관계도 호의적으로 배려하는 가족도 많지만 무시하고 거부적이고 지배적인 가족들이 있어서 결혼이민자뿐 아니라 그들의 남편까지도 힘들게 하는 가족환경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결혼이민자 및 혼혈아인 자녀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은 가족안정성을 저해하고 인권까지도 침해하고 있다(김유경, 2005)고 지적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이 각 부처에서는 결혼이민자를 위한 많은 정책들과 지원서비스들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으나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일시적인 이벤트성 지원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통합된 지원정책이 고안되어져야 한다.

2. 국제결혼부부의 가정생활상의 문제점

국제결혼한 부부들은 첫째 주위로부터 차별적인 시선과 관심을 받으며 살아간다. 특히 여성결혼이민자들은 국내생활적응에서 몇 가지 구조적인 측면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우선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부족이다. 의사소통의 문제는 한국의 가부장적 성문화 및 가족관계를 이해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하는 동시에 남

편이나 가족원과의 대화를 기피하게 만들어 스스로를 고립시켜 부부갈등이나 가족갈등으로 이어져 결국 결혼생활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의사소통은 결혼생활의 적응은 물론 결혼만족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의 하나로 가족생활적응에 있어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조경림, 1997). 부부간의 결혼만족도가 높은 경우에는 의사소통이 효율적이었으며(김수연. 김득성, 1993), 의사소통빈도가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다(김경숙, 1984; 모의희.김재환, 2002)고 보고하고 있다. 국제결혼 한 외국여성들의 문제유형은 언어습득의 부족으로 인한 의사소통의 어려움, 가정폭력 및 여성에 대한 폭력, 사회시스템부족으로 인한 부작용, 정보소외로 인한 사회적 관계망 형성과 사회참여기회의 어려움, 사법권민 행정기관에의 접근성 어려움, 귀화시험의 어려움, 문화적 갈등, 사회복지서비스 접근의 어려움, 기타 사설알선업자들의 여권압류 및 감시등이다.(이금연, 2003)

한편 권위적인 남편의 태도는 아내가 한국어가 서툴다는 이유로 잘 들어주지 않거나 말을 해줘도 모른다고 무시하고, 일의 결정에서 소외시키는 등 의사소통에 대한 시도가 적다. 또한 일부 가족관계에서는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신뢰를 갖지 못하고 외부와의 접촉을 꺼려하며 폐쇄적인 태도를 갖으며 여성결혼이민자들에게 한국사회에 대한 경험과 교육의 기회를 차단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여성결혼이민자들 중에는 결혼을 합법적인 취업의 통로로 이용하는 사례가 있고, 위장결혼을 하여 들어오는 사례가 (Piper, 1999) 증가함에 따른 불신이 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한국남성이 결혼비용을 전부 부담하였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결혼 파기를 원하는 경우 이들은 결혼비용을 갚으라고 요구한다. 외국인 아내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돈이기에 결혼관계에서 벗어나기 어렵다(채옥희 외3인, 2006). 가정생활 상에서 남편들의 고충은 동거하는 가족과 부인과의 원만하지 못한 관계에서 애로를 갖고 있으며, 서로 다른 문화로 인한 부부간의 오해와 생활문화의 차이를 대화를 통해 속 시원히 이해시킬 수 없다는 고충을 토로한다. 전남지역에(광주광역시여성발전센터, 2002) 거주하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생활실태를 통해서 외국인 주부가 가장 어려워하는 것은 문화적 이질감45%, 의사소통의 어려움 38%로 나타났다. 강유진(1999)연구에서도 여성들이 결혼생활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은 생활습성, 언어 장벽, 등 문화적 차이이며 고향에 대한 그리움, 남편과의 성격차이 등으로 나타났으며, 조선족은 우리와 같은 민족이라 하더라도 자라온 생활환경이 중국이라는 점, 특히 시댁이나 남편과의 관계가 우리와 다른 점이 많은 중국에서 자라왔다는 점을 인정하여 중국동포들에게 문화적 충격을 극복하고 한국생활에 빨리 적응할 수 있는 배려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처럼 조선족이라도 한국생활적응에 시간이 걸리며 교육이 필요한데 필리핀이나 베트남, 태국 등에서 시집온 여성들의 어려움은 더욱 심각할 것이다.

국제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연구나 관심(박현정, 2004; 윤정숙. 임유경, 2004)에서 문제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총체적으로 언어가 통하지 않는 것을 가장 많이 지적하였고, 다음이 문화적인 갈등과 외로움, 차별대우, 지역주민의 냉대, 시부모나 남편의 학대와 폭력 등을 지적하고 있다.

강복정(2006)은 국내결혼이민자 가족의 문제점은 결혼이민자에 대한 여성폭력으로 이들이 한국으로 입국하기 전부터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동안 다양한 형태의 폭력으로 노출된다는 것과, 남편의 성관계강요, 외부세계와의 강제적인 차단, 경제적 문제, 남편의 음주 등 편견과 선입견이라고 밝히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인으로서 단일민족이나 순혈주의를 고집하는 사회적 편견과 타 문화에 대한 몰이해는 동남아시아 국가를 비롯한 제3세계 여성에 대한 차별이 강하므로 국내생활적응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이민집단의 여성을 대상으로 이민상황에 대한 그들의 심리적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에서는 사회적 네트워크의 효과를 가장 강력한 요인으로 꼽고 있다(Manuel, 2002). 따라서 이들의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적응을 위해서는 가정 내에서부터 수용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이다.

Ⅲ.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전라북도에 거주하는 국제결혼 부부를 대상으로 전라북도 전 지역에 걸쳐 국제결혼 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부부를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조사는 부인들은 질문지를 이용하여 면접법으로 이루어졌으며, 남편들은 질문지를 자기기입식으로 조사하였다. 부인들은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부인들을 중심으로 조사되었으며, 그 외 면사무소, 종교단체, 시민단체 등을 통해 국제결혼을 한 남편들을 조사하였다. 따라서 총 140명이 조사되었는데, 이중 여성이 78명 (55.7%), 남성이 62명 (44.3%)의 질문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2.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의 일반적변인은 여러 선행연구(조유리, 2000; 이경희, 1998; 양순미, 2006; 김득성, 1989)들을 바탕

으로 선정하였다. 이들 변인으로는 성, 연령, 연령차, 국적, 국적취득여부교육수준, 결혼기간, 가족형태, 종교 등을 포함시켰으며, 가치관, 의사소통유형, 갈등, 등 주로 결혼이민자 부인들과 한국남편사이에서 적응에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는 변인과의 관계와 차이를 살펴봄으로서 국제결혼 가족의 적응전략을 모색하고자 한다.

통계분석은 SPSS를 이용하여 기술적 통계분석과 상관관계, 요인분석, one-way ANOVA(with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하였다.

Ⅳ. 연구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결혼관련변인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1) 사회인구학적 변인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성 78명, 남성 62명이 응답하여 총 140명이 응답하였다.

조사대상자들의 종교는 기독교가 가장 많았고(여성 30.8%,남성35.5%) 불교가 다음(여성23.7%, 남성 19.4%)으로 많았다. 여성의 국적은 베트남(33.3%)이 가장 많고, 필리핀과 중국(23.1%)이 다음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의 국적은 79.5%가 베트남, 필리핀, 중국이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연령은 여성의 평균연령은 29.43세이고 남성의 평균연령은 40.03세로 나타났으면 연령차는 10.63세이었다.

교육기간은 남성이 약간 높았으며 큰 차이는 없었다. 자녀수는 현재 임신 중인 경우 1명으로 포함하여 1.10명이었다.

가족형태는 여성의 경우는 전체가 확대가족이라고 응답하였으며, 남성은 62.5%가 확대가족이라고 응답하여 확대가족을 이루고 사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국적과 종교의 상황으로 볼 때 여성의 종교가 남성보다 불교가 높게 나타난 것은 베트남 국적의 여성의 수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국적취득여부는 전체적으로 67%정도가 취득이 확실한 것으로 응답하였다.

직업은 남성의 경우 농업과 사무직이(22.6%)많았고, 여성은 사무직(33.3%)이 가장 많았고 농업과 서비스직에도 10.3%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결혼관련변인

<표 2> 결혼관련변인을 살펴보면 배우자를 만난방법은 전체적으로는 종교단체를 통해 만난 경우(25.7%)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친구나 선후배의 소개(24.3%)로 만난 경우가 다음이었다. 여성의 경우는 결혼중개업체(28.2%)를 통해 만난 경우가 가장 높았고, 친구나 선후배의 소개(23.1%), 직접만남(20.5%)의 경우도 적지않은 비율을 보였다. 남성의 경우 친구나 선후배의 소개가 가장 높은 것은 국제화 시대의 개인적인 교류가 빈번해짐에 따라 수반되는 현상이라고 보여진다.

결혼 전 만난횟수는 전체적으로는 1~2번(38.6%), 3~4번(21.4%)이 60%를 차지하여 결혼 전 서로를 파악하고 친밀감을 느낄 수 있는 접촉이 너무 적음을 보여준다. 한번도 만난 적이 없다도 11.4%를 나타냈다. 이러한 상황은 결혼 후 부부생활 적응에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한국남성과 결혼이민자의 결혼동기는 많은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한국남성이 외국인 배우자와 결혼한 이유는 한국인 배우자를 못만나서(51.6%)가 절반을 넘게 응답하였고, 한국여성보다 배우자로서 더 좋다고 생각되어(35.5%)를 다음이유로 응답하였다. 현재 부인을 사랑하여(9.7%)로 세 번째 결혼이유로 밝히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의 대상이 농촌지역에 국한하여 조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농촌총각과의 결혼을 기피하는 요즘 한국여성들의 세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농촌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결혼하지 못하는 농촌총각을 매력있는 신랑감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점이 달라져야 하는가는 국가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결혼이민자(부인)가 한국남성과 결혼한 이유를 살펴보면 사랑하여(36.8%), 경제적으로 더 발전된 한국에서 살기위해(31.6%)의 순으로 응답하여 한국남성의 배우자 선택 이유와 차이를 보였다. 특히 결혼이민자는 보다 나은 삶을 위하여 한국남성과 결혼한 비율이 높게 나타나서 한국에서의 풍족한 결혼생활을 기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결혼 형태는 여성은 모두 초혼이었으며 남성은 2명(3.5%)이 이혼에 의한 재혼으로 나타났다.

주말부부로 살아가는 경우는 전체적으로는 19.7%정도이었고, 여성은 13.9%, 남성은 26.7%로 나타났다. 이 경우 부부가 만나는 횟수는 일주일에 한번 이상 만나는 경우가 85.7%이었다.

<표 1>사회 인구학적 변인

		여성		남성		전체	
		N	%	N	%	N	%
성별		78	55.7	62	44.3	140	100
연령	M(SD)	29.43	8.39	40.03	7.33		
종교	불교	18	23.7	12	19.4	30	21.7
	기독교	24	30.8	22	35.5	46	33.3
	천주교	4	5.1	8	12.9	12	8.7
	통일교	8	10.3	12	19.4	20	14.5
	종교없음	22	28.9	6	9.7	28	20.3
	무응답	2	2.6	2	3.2	2	1.4
연령차	M(SD)	10.78	6.28	10.45	4.84	10.63	5.65
교육기간	M(SD)	11.08	3.32	12.69	2.39	11.79	3.04
자녀수	M(SD)	1.05	1.33	1.27	1.24	1.10	1.31
가족형태	핵가족	0	0	18	37.5	18	14.3
	확대가족	78	100	30	62.5	108	85.7
국적	필리핀	18	23.1	20	32.3	38	25.3
	베트남	26	33.3	10	16.1	36	24.0
	중국	18	23.1	10	16.1	28	18.7
	일본	0	0.0	2	3.2	2	1.3
	우즈베키스탄	6	7.7	6	9.7	12	8.0
	몽골	2	2.6	0	0.0	2	1.3
	카자흐스탄	2	2.6	2	3.2	4	2.7
	러시아	2	2.6	1	1.6	2	2.7
	미국	0	0.0	0	0.0	1	0.7
	기타	4	5.1	5	8.1	9	6.0
국적취득여부	취득예정	56	71.8	38	61.3	94	67.1
	미취득	22	28.2	24	38.7	46	32.9
직업	건설	4	5.1	2	3.2	6	4.0
	공장근로	2	2.6	2	3.2	4	2.7
	교육	2	2.6	2	3.2	4	2.7
	기술	2	2.6	4	6.5	6	4.0
	노동	2	2.6	2	3.2	4	2.7
	농업	8	10.3	14	22.6	22	14.6
	무직	2	2.6	0	0.0	2	1.3
	사무직	26	33.3	14	22.6	40	26.7
	사업	2	2.6	6	9.7	8	5.3
	서비스	8	10.3	4	6.5	12	8.0
	요리사	2	2.6	0	0.0	2	1.3
	운전	6	7.7	2	3.2	8	5.3
	자동차	4	5.1	4	3.5	8	5.3

*자신이 주부 또는 무직이라고 대답하지 않은 경우는 무응답으로 처리함
*한국에서의 현 직업에서 교육은 영어강사, 통역강사를 말함
*기술직은 목수, 석재관련직종, 인테리어 등에 종사함을 말함
*전문직은 변호사, 오락치료사, 회계서, 약사, 의사, 간호사, 변호사, 레크레이션프로그래머 등을 말함

<표 2> 결혼관련변인

		여성		남성		전체	
		N	%	N	%	N	%
성별		78	55.7	62	44.3	140	100
만난방법	부모 형제 친척	8	10.3	6	9.7	14	10.0
	친구 선후배	18	23.1	16	25.8	34	24.3
	결혼중개업체	22	28.2	10	16.1	32	22.9
	행정기관의 주선	0	0.0	0	0.0	0	0.0
	종교단체	14	17.9	22	35.5	36	25.7
	직접 만남	16	20.5	6	9.7	22	15.7
	기타	0	0.0	2	3.2	2	1.4
만난횟수	한 번도 만난적 없다	6	7.7	10	16.1	16	11.4
	1-2번	30	38.5	24	38.7	54	38.6
	3-4번	16	20.5	14	22.6	30	21.4
	5-9번	10	12.8	4	6.5	14	10.0
	10번이상	16	20.5	10	16.1	26	18.6
여성 결혼이유	경제적으로 더 발전된 한국에서 살기위해	24	31.6	22	35.5	(남성결혼이유) 배우자감으로 한국여성보다 좋아서	
	본국에의 지원	6	7.9	0	0.0	결혼자금이 부족하여	
	본국을 떠나고 싶어서	2	2.6	32	51.6	한국인 배우자를 못 만나서	
	한국에서의 취업	4	5.3	0	0.0	자녀를 갖기 위해	
	가족과 친척의 권유	4	5.3	0	0.0	가족과 친척의 권유로	
	사랑	28	36.8	6	9.7	부인을 사랑하여	
	종교적 이유	4	5.3	0	0.0	종교적인 이유로	
	기타	4	5.3	2	32	기타	
결혼형태	초혼	76	100	52	92.9	128	96.9
	재혼	0	0.0	2	3.5	2	1.5
	재혼이상	0	0.0	2	3.5	2	1.5
주말부부여부	아니오	62	86.1	44	73.3	106	80.3
	예	10	13.9	16	26.7	26	19.7
주말부부 만남횟수	한달에 1번	0	0.0	0	0.0	0	0.0
	2주에 1번	2	20.0	0	0.0	2	7.1
	1주에 1번	6	60.0	12	66.7	18	64.3
	1주에 2번 이상	2	20.0	4	23.2	6	21.4
	기타	0	0.0	0	0.0	0	0.0

2.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각 변인간의 차이

사회인구학적변인 중에서 각 변인(결혼만족도, 가치관, 의사소통유형, 갈등유형)들과의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것은 연령과 국적취득여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1) 성별에 따른 각 변인들 간의 차이

<표 3>성별에 따른 각 변인들 간의 차이에서 성별에 따른 결혼만족도는 유의미하지는 않았지만 남성과 여성 간의 점수는 비슷하였고 여성의 결혼만족도가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점수는 평균을 넘은 점수(범위1~4, 여성M=3.23, 남성M=3.10)로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

성별에 따른 가치관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며 여성

<표 3> 성별에 따른 각 변인들 간의 차이

성별에 따른 결혼만족도				
	M	SD	T	P
여성	3.23	.67	.85	.39
남성	3.10	.76		

성별에 따른 가치관				
	개방적		보수적	
	M	SD	M	SD
여성	3.61	0.10	3.59	0.08
남성	3.34	0.30	3.75	0.08
T(P)	.488 (.486)		2.697 (.103)	

성별에 따른 의사소통										
	일치형		회유형		비난형		초이성형		산만형	
	M	SD	M	SD	M	SD	M	SD	M	SD
여성	2.92	0.08	2.46	0.08	2.53	0.09	2.00	0.09	3.22	0.08
남성	3.28	0.07	2.91	0.07	2.43	0.09	2.67	0.07	2.07	0.10
T(P)	3.05 (.08)		5.88 (.02)		.56 (.45)		4.00 (.05)		.12 (.73)	

성별에 따른 갈등								
	1		2		3		4	
	M	SD	M	SD	M	SD	M	SD
여성	2.11	.08	2.04	.07	1.82	.10	1.86	.08
남성	2.01	.08	2.34	.05	2.08	.10	1.80	.10
T(P)	.30 (.59)		2.284 (.13)		.025 (.87)		.241 (.62)	

*요인분석에 의해 갈등1은 성격, 사고방식과 가치관, 애정과 관심지지, 대화, 생활습관, 성생활, 금전관리와 소비, 가사노동분담 등의 분야로, 갈등2는 건강, 외도나 부정, 사회활동을 포함하였으며, 갈등3은 자녀양육 및 교육, 직업, 갈등4는 친인척 문제, 여가활동 을 포함한다.

과 남성간의 점수도 비슷하지만 여성은 개방적인 가치관(M=3.61)을 보였으며 남성은 보수적인 가치관(M=3.75)을 나타냈다. 따라서 한국남성과 외국여성간의 가치관의 차이가 가족생활에서 차이를 보일 것이라고 사료되며, 이들 가치관의 차이를 좁힐 수 있는 국제화 시대에 맞는 교육과 더불어 서로의 차이를 알게 하는 교육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성별에 따른 의사소통유형은 일치형, 회유형, 초이성형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일치형에서는 남성(M=3.28)가 여성(M=2.92)보다 높은 점수를 보여 일치형의 의사소통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일치형, 회유형, 초이성형의 점수(범위1~4)가 모두 남성보다 낮게 나타나 언어장벽이 이러한 결과를 나타내지 않았나 하는 추론을 해볼 수 있다.

성별에 따른 가족생활에서 느끼는 갈등의 영역을 살펴보면 유의미한 결과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특이한 결과는 평균값이 모든 영역에서 낮다는 점이다. 여성과 남성 모두 갈등1에 해당하는 성격, 사고방식과 가치관, 애정과 관심지지, 대화, 생활습관, 성생활, 금전관리와 소비, 가사노동분담 등의 분야와 갈등2의 건강, 외도나 부정, 사회활동을 포함하여, 갈등3의 자녀양육 및 교육, 직업, 갈등4의 친인척 문제, 여가활동 등에서 모두 적응이 어렵다고 생각하고 갈등을 느끼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여성은 갈등3과 4의 영역에서 갈등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갈등4와 갈등1영역에서 갈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여성은 자녀양육과 교육, 친인척문제와 여가활동 등에서 문제를 느끼고 있으며, 남성은 개인적인 차이와 일상생활분야, 친인척관계에서 갈등을 느끼고 있다. 따라서 국제결혼을 하려는 남성들을 대상으로 개인과 개인 간의 차이를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 살아갈 것인가 하는 내용의 교육과 가족생활교육이 더욱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2) 국적에 따른 각 변인간의 차이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적에 따른 각 변인(결혼만족도, 가치관, 의사소통유형, 갈등유형) 중에서 가치관과의 차이는 전체적으로 필리핀과 중국 간의 차이를 보

<표 4> 국적에 따른 각 변인간의 차이

국적에 따른 가치관

	개방적			보수적		
	여성	남성	전체	여성	남성	전체
필리핀	1.69	3.09	4.68a	1.42a	2.33ab	3.67
베트남	1.64	1.35	3.73ab	1.85c	1.67a	3.60
중국	3.22	2.77	3.32b	1.47bc	3.78b	3.75
기타	3.61	1.18	3.77ab	1.73bc	2.63ab	3.63
T(P)			.4.657(.000)			.2.587(.089)

국적에 따른 의사소통

의사소통	일치형			회유형			비난형			초이성형			산만형		
	여성	남성	전체	여성	남성	전체	여성	남성	전체	여성	남성	전체	여성	남성	전체
필리핀	3.13	3.00b	3.06ab	2.77a	2.81	2.79a	2.88a	2.48	2.69a	2.38a	2.81	2.59a	3.17	2.06bc	2.65b
베트남	3.04	3.60a	3.21a	2.58a	2.80	2.64ab	2.58ab	2.43	2.54ab	1.96ab	2.50	2.11b	3.00	1.70c	2.62b
중국	2.67	3.50a	2.92ab	2.02b	2.90	2.33b	2.13b	2.33	2.21b	1.69b	2.75	2.04b	3.50	2.40ab	3.11ab
기타	2.67	2.96b	2.78b	2.42ab	3.13	2.70a	2.42ab	2.33	2.39ab	2.08ab	2.84	2.33ab	3.33	2.83a	3.17a
F(P)	2.39 (.01)	5.19 (.00)	2.24 (.09)	4.35 (.01)	.89 (.46)	2.78 (.04)	2.75 (.05)	.18 (.91)	2.50 (.06)	2.13 (.11)	1.09 (.37)	3.28 (.03)	1.70 (.18)	5.12 (.01)	3.08 (.03)

국적에 따른 갈등

갈등	1			2			3			4		
	여성	남성	전체	여성	남성	전체	여성	남성	전체	여성	남성	전체
필리핀	2.76a	2.13	2.41a	1.88	2.52	2.22	1.88	2.45	2.19	2.00ab	2.10	2.06a
베트남	2.12b	1.95	2.07b	2.09	2.27	2.14	1.88	2.00	1.91	1.69b	1.50	1.65b
중국	1.70b	1.83	1.75b	2.17	2.25	2.19	1.94	1.90	1.92	1.83ab	1.88	1.85ab
기타	2.03bc	2.03	2.03b	2.06	2.25	2.13	1.75	2.25	1.95	2.25a	1.75	2.05a
F(P)	9.95 (.00)	.51 (.68)	6.11 (.00)	.68 (.57)	1.57 (.21)	.15 (.93)	.11 (.95)	1.33 (.28)	.84 (.47)	1.80 (.16)	1.70 (.18)	2.42 (.07)

*집단 간 차이가 있는 것만 표기했음

였는데 필리핀 여성과 그의 남성이 보다 개방적인 경향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보수적인 가치관은 필리핀과 베트남 여성간의 차이를 보였는데 베트남 여성이 더 보수적인 가치관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중국과 베트남여성과 결혼한 집단 간에 차이를 보였는데 중국여성과 결혼한 남성의 집단이 높은 점수의 차이를 보여 보수적인 가치관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중국여성과 결혼한 남성들과의 생활문화 상의 차이에서 많은 갈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국적에 따른 의사소통은 모든 유형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일치형에서는 여성은 집단 간 차이를 보이지 않았는데 이는 언어가 모두 서툴기 때문에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남성의 경우 베트남과 기타국적을 가진 집단과 필리핀 국적의 여성과 결혼한 남성 집단 간에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필리핀 여성과 결혼한 남성은 영어를 통해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회유형은 여성의 경우 필리핀, 베트남과 중국국적의 집단 간 차이를 나타냈다. 필리핀과 베트남 국적의 여성은 중국여성에 비해 한국어가 원활하지 못하고 따라서 직접적인 표현보다는 간접적인 회유형의 의사소통유형을 갖는 것으로 해석된다. 비난형은 필리핀과 중국국적의 집단 간 차이를 보였으며, 초이성형은 필리핀과 베트남. 중국국적의 집단 간의 차이를 보였다. 산만형은 필리핀. 베트남국적집단과 기타국적간의 차이를 보였다. 여성은 일치형, 회유형, 비난형에서 집단 간 차이를 보였고, 초이성형에서는 필리핀과 중국집단간 차이를 보였다.

국적에 따른 갈등은 여성의 경우 갈등1에서 필리핀 집단과 중국.베트남.기타지역이 집단 간 차이를 보였다. 갈등1은 개인적 특성과 생활습관에 의한 갈등으로 필리핀은 영어권 문화로 약간의 소통이 가능하지만 베트남과 중국은 한국어가 아니면 소통에 어려움을 겪게 됨에도 필리핀 여성의 경우가 점수가 높았는데 이는 필리핀 여성들의 학력이 남편과 차이를 보였는데 이러한 학력의 차이에서 올 수 있다고 볼 수도 있다. 갈등4는 친인척 관계갈등으로 여성의 경우 베트남과 기타집단 간에 차이를 보였다. 기타지역은 <표 1>에 나타난바와 같이 소수의

인원으로 이루어져 있는 집단이다. 따라서 한국에서 언어가 전혀 다른 나라의 결혼이민자로 살아가는 것은 특히 가족과 친척간의 관계에서 많은 갈등을 겪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3. 각 변인간의(결혼만족도, 가치관, 의사소통유형, 갈등유형) 상관관계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변인 중에서 가치관은 개방과 보수의 두 영역으로 구분하였고, 의사소통유형은 일치형, 회유형, 비난형, 초이성형, 산만형의 5개 영역으로 하였다. 갈등은 각 가족생활갈등분야를 15개 분야로 조사를 하였으나 이들의 고유값을 요인분석을 한 결과 4개의 영역으로 묶여 각각 4개의 갈등영역으로 나누었다. 갈등1은 성격, 사고방식과 가치관, 애정과 관심지지, 대화, 생활습관, 성생활, 금전관리와 소비, 가사노동분담 등의 분야로, 갈등2는 건강, 외도나 부정, 사회활동을 포함하였으며, 갈등3은 자녀양육 및 교육, 직업, 갈등4는 친인척 문제, 여가활동 등으로 영역이 나뉘었다. 각 분야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갈등1은 개인적 특성들에 의한 갈등영역들을 유사한 갈등으로 인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갈등2는 건강과 사회적관계, 갈등3은 자녀양육과 직업 갈등 4는 친인척관계 등으로 유형화 했다. 이들 변인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각 변인간의 상관관계<표5>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결혼 만족도는 가치관이 개방적인 경우 정적관계로 개방적인 가치관을 가진 경우 결혼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보수적 가치관도 결혼만족도에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적에 따라 개방적 가치관과 보수적 가치관을 수용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의사소통의 유형 중에서 회유형과 비난형인 경우 부적관계 보여 의사소통유형이 회유형과 비난형인 경우 결혼만족도가 낮아지는 것을 말해주며 산만형이 관계가 있었다.

결혼만족도와 갈등은 1유형(-.599), 4유형(-.477), 3유형(-.329)과 부적관계를 보여 결혼만족도는 개인적 특성들에 의한 갈등과 친인척관계에 의한 갈등, 자녀양육과 직업에 의해 갈등이 적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갈등대처행동에 따른 결혼만족도는 회피(-.429), 외부도움요청(-.203)행동이 적을수록 만족도가 높다고 해석된다.

가치관과 의사소통유형은 개방적 가치관과 비난형 의사소통 유형이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치관과 갈등은 갈등1영역과 부적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성격, 사고방식, 가치, 애정 관심, 대화, 생활습관, 성생활, 금전소비, 가사노동 등의 분야는 보수적인 가치관일수록 갈등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의사소통의 각 유형 간의 상관관계는 일치형과 회유형이 정적관계를 보여 서로 많이 사용하는 유형으로 볼 수 있다. 일치형과 산만형은 부적관계를 보였으며 일치형을 사용하는 사람은 산만형을 잘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유형과 초이성형은 부적상관관계가 있으며, 비난형은 초이성형과 정적관계로 나타났다. 산만형은 초이성형과 부적관계를 보여 산만형의 의사소통을 하는 사람은 논리적인 설명이 불가능하리라고 볼 수 있다.

의사소통과 갈등은 일치형과는 모두 부적관계로 나타

<표 5> 각 변인간의 상관관계(전체)

전체		결혼 만족도	가치관		의사소통					갈등			
			개방적	보수적	일치형	회유형	비난형	초이성형	산만형	갈등1	갈등2	갈등3	갈등4
결혼만족도		1											
가치관	개방적	.301**	1										
	보수적	.200*	-.065	1									
의사소통	일치형	.120	.157	.088	1								
	회유형	-.335***	.132	-.125	.375***	1							
	비난형	-.218*	.212*	.007	-.066	.067	1						
	초이성형	.027	.012	.167	-.042	.168	.338***	1					
	산만형	.214*	-.074	.155	-.412***	-.484***	.102	-.241**	1				
갈등	갈등1	-.599***	.027	-.204*	-.280.8*	.251**	.202*	.161	-.095	1			
	갈등2	-.038	.052	.098	-.141	-.046	.108	.314***	-.123	.220*	1		
	갈등3	-.329**	.045	.056	-.264**	.046	.285**	.281**	-.010	.349***	.286**	1	
	갈등4	-.477***	.112	-.113	-.197*	.173	.168	.079	.065	.511***	.273**	.409***	1

* P<.05 **P<.01 ***P<.001

나 갈등상황에서 일치형의 의사소통이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갈등과 화가 났을 때 일치형으로 의사소통하는 방법을 아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갈등1영역인 성격, 사고방식, 가치, 애정 관심, 대화, 생활습관, 성생활, 금전소비, 가사노동 분야는 회유형과 비난형의 의사소통을 주로 많이 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갈등3영역인 자녀양육 및 교육, 직업분야에 대해서는 비난형의 의사소통 유형을 보인다. 갈등2영역인 건강, 외도나 부정, 사회활동분야는 초이성형의 유형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갈등과 갈등간의 상관관계는 서로 간에 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어느 한 분야의 갈등은 전체의 생활영역에 영향을 준다고 해석할 수 있다.

성별결과를 보면 남성들은 갈등과 결혼만족도간 모든 영역에서 부적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여성들은 갈등1과 4에서 관계가 있음을 나타냈다. 의사소통에서 남성은 일치형일때 결혼만족도와 정적관계가 있고, 남성들의 갈등은 갈등1.3영역에서 관계가 있었다.

4.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표 6>은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결혼만족도에 대한 전체 변인별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전체 변수의 설명력은 74%로 나타났다. 사회인구학적 변인에서는 성별, 학력, 결혼기간, 연령차는 의미가 없는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연령과 국적취득여부는 결혼만족도와 의미있는 변인으로 밝혀졌다. 국적취득여부는 부적 영향을 미쳤으며, 연령에서 여성은 부적영향을 남성은 정적영향을 나타내 대조를 보였다. 각 변인(가치관, 의사소통유형, 갈등유형)중에서 가치관은 보수적인 가치관이 의미가 있었는데 부적 영향을 보였다. 의사소통 유형 중에서는 일치형에서만 유의미했다. 정적 영향을 보여 일치형이 결혼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유형을 볼 수 있다. 갈등은 모든 영역에서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나타나 구체적인 갈등의 원인을 다시 밝혀내는 심도있는 연구가 있어야 하겠다. 또한 결혼생활에 있어서 갈등은 결혼만족도에 영향력 있는 변인임을 말해준다.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국제결혼부부의 가치관 및 의사소통유형과 갈등과의 관계를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결혼관련변인을 통해 밝히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바탕으로 한 논의 및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인구학적 배경에서 나타난 결과는 확대가족(85.7%)을 이루고 사는 경우가 많아서 부부간의 관계뿐 아니라 친인척관계 등 여성의 심리적 부담이 많을 것이라고 보여진다. 이는 갈등 요인에서 친인척관계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소수의 기타국적과 베트남국적의 여성들이 차이를 보인 것 과 관련이 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의 확대가족문화를 결혼 전에 아는 것이 적응을 도울 수 있으며, 국제결혼을 하고자 하는 집안에서는 상대국에 대한 정보와 문화적 특징을 가족들과 공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적응이란 결혼 대상자만의 일이 아니라 그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가족과 친인척들의 수용적 태도가 결혼이민자에게는 적응을 용이하게 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남편과 아내의 연령차가 10세 이상으로 나타나

<표 6>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B	β	T	P
상수	7.473		9.522	.000
보수적	-.268	-.324	-3.562	.001
일치형	.402	.421	3.345	.001
갈등1	-.630	-.643	-6.647	.000
갈등2	.156	.131	1.721	.050
갈등3	-.318	-.441	-4.820	.000
갈등4	-.223	-.254	-2.549	.013
여성연령	-.279	-4.623	-2.098	.040
남성연령	.258	3.661	1.849	.069
국적취득여부	-.219	-.164	-1.835	.041
	R^2 =.744	F =11.705	p = .000	

서 세대 간의 연령차에 의한 갈등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배우자와의 연령차 극복을 위한 부부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셋째, 결혼관련 변인의 분석 결과 배우자를 만난방법을 보면 결혼중개업체가 가장 높고, 친구나 선후배의 소개에 의한 경우가 결혼중개업체 다음으로 높게 나왔다. 국제결혼을 중개하는 업체들이 결혼 전 서로 다른 문화에 대한 교육과 결혼대상자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한국에 결혼해 오려는 외국여성들의 기대에 어긋나 실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의 태도라고 볼 수 있다.

한국남성들이 국제결혼을 하게 되는 이유는 한국인 배우자를 만나지 못해서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농촌의 환경개선에 의해 살고 싶은 곳으로 만드는 국가적 노력이 모아져야 한다고 본다. 또한 결혼대상인 남성들의 결혼준비교육과 여성들의 건전한 가치관 교육도 요구된다. 한편 여성들의 응답은 남편을 사랑하여, 경제적으로 더 발전된 한국에서 살기위해의 순으로 나타나 한국남성의 배우자 선택 이유와 차이를 보였다. 특히 결혼이민자는 보다 나은 삶을 위하여 한국남성과 결혼한 비율이 높게 나타나서 한국에서의 풍족한 결혼생활을 기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서로의 결혼에 대한 기대의 차이로 나타나 갈등의 요인이 될 수 있다.

넷째, 결혼만족도와 가치관은 개방적. 보수적 가치관 모두 관계가 있는 변인으로 나타나 국적에 따라 가치관에 대한 긍정적 수용정도가 다르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여성들의 국적에 따라 그 나라의 일반적인 가족생활 가치가 어떠한지 파악하는 것도 가족생활적응에 필요하다고 본다.

다섯째, 결혼만족도와 갈등은 서로 높은 관계가 있어서 갈등이 많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낮아지는 결과를 보였고, 전체적인 의사소통유형은 일치형일 경우 결혼만족도가 높았다. 아직은 여성들의 경우 언어가 원활하지 못하므로 의사소통유형에는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여성의 국적에 따라 남성들의 의사소통유형이 집단 간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가능하다면 부인의 국적에 따라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본다.

여섯째, 의사소통유형이 일치형인 경우 결혼만족도가 높으므로 이들의 결혼만족을 위해서도 한국어 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일곱째, 사회인구학적변수 중에서 결혼만족도와 관련 있는 것은 연령과 국적취득여부임으로 밝혀졌다. 국제결혼부부의 연령차가 10년 이상으로 되어 있으므로 이는 세대차뿐만 아니라 여성의 평균수명을 고려해도 홀로 자녀양육을 해야 하는 일이 발생하므로 결혼중개업체에서는 연령차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이상을 바탕으로 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이나 남성 모두 국가 집단 간 각 변인에서 차이를 보이므로 국가 간 생활문화를 이해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적응자세가 요구된다. 국제결혼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 간 축제의 교류나 민간교류, 문화교류가 활발해짐으로써 결혼당사자 뿐 아니라 전 국민의 타문화 수용도를 높여야 한다.

둘째, 결혼이민자와 한국가족들과의 언어장벽은 가장 적응이 요구되는 결혼초기에 문제가 되므로 이들의 가족생활적응을 위해서는 한국가족들의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이해가 배려가 우선되어야 하며, 그들의 문화이해를 도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지역을 막론하고 대상자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결혼 초기나 결혼 전에 가족생활적응을 도울 수 있는 제도적 교육이 의무화되어야 한다고 본다.

주제어 : 확대가족원, 체계적인 한국어교육

참 고 문 헌

강복정(2006). 국내결혼이민자가족의 문제점과 결호이민자 가족지원센터 역할. 한국가정관리학회. 결혼이민자 가족지도 실무자 양성워크숍 자료집.

강유진(1999). 한국남성과 결혼한 중국조선족 여성의 결혼생활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4(2), 62-79.

광주광역시여성발전센터. 2002. 10.28. 보도자료; 광주전남 여성 실태조사

김경숙(1984). 부부간의 커뮤니케이션과 결혼만족도의 관계에 대한 연구, 관동대학 논문집12, 75-87.

김득성(1989). 결혼만족도 척도에 관한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7(2), 85-94.

김수연.김득성(1993). 부부의 응집 및 적응과 의사소통의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1(2), 30-39.

김유경(2005). 가족원특성에 따른 다양한 가족의 실태와 사회적 지원방안, 보건복지포럼, 통권103, 47-72.

모의희.김제환(2002). 의사소통과 부부적응관계에 대한 자아존중감과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상담 및 심리치료, 14(4), 887-900.

박현정 (2004). 광주전남지역 국제여성결혼이민자 실태보고, 광주여성의 전화 부설가정폭력상담소. 3-34.

보건복지부(2005).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 복지지원 정책방안.

서리나(2006). 한국여성이민자의 사회적 지지와 심리적 복지,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0(4), 87-107.

양순미(2004). 성별에 따른 농촌부부의 행복정도와 가족건강성 변인의 효과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9(2), 153-172.

양순미, 정현숙(2006). 농촌 국제결혼부부의 결혼생활적응과 만족에 대한 영향요인,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1(3), 223-252.

이경희(1998). 부인이 지각한 갈등과 친밀감에 따른 부부관계유형,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금연(2003). "국내 국제결혼과 그 이해- 실태와 문제점을 중심으로" 국제결혼과 여성폭력에 관한 정책제안을 위한 원탁토론회 자료집; 21-44. 안양전진상복지관 이주여성쉼터.

이현아(2001). 재미 한인여서의 성역할과 우울증에 관한 연구, 일리노이대학 박사학위논문.

정영덕(2004). 국제 결혼한 외국인 여성들의 삶의 만족도 연구. 한일장신대학교 아시아태평양국제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조경림(1997). 부부의 커뮤니케이션 단계에 따른 결혼만족도, 침례신학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조유리(2000). 부부갈등 및 갈등대처행동과 결혼만족도, 잔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채옥희,김정훈,홍달아기, 이남주(2006) 국제결혼가족의 가정생활과 적응전략. 한국가정관리학회 추계 학술대회.

채옥희,홍달아기 (2007) 베트남 결혼이민자의 한국 생활적응 사례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 16(1), 61-73.

통계청(2006). 혼인.이혼 통계결과.

홍달아기, 채옥희(2006). 사례로 본 여성결혼이민자의 가정생활실태와 갈등. 한국생활과학회지, 15(5), 729-741.

Piper. N.(1999). Labor migration, trafficking and international marriage : F드민 cross-border movements into Japan. *AJWS, 5*(2), 69-99.

Manuel F., M.G., Manuel, G.R., & I냥개, M.J.(2002). Social support and locus of control as preditors of psychological well-being in Moroccan and Peruvian immigrant women in Spain.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26*(3), 287-310.

(2007. 04. 15 접수; 2007. 07. 20 채택)